

# “인재양성 장학사업 펼친다”

## 대동남 장학회 전방진 이사장 첫 장학금 전달식 가져



대동남 장학회(이사장 전방진)는 지난 14일 동남 중·고등학교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남장학회 결성이후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동남 장학회(이사장 전방진)는 지난 14일 동남 중·고등학교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남장학회 결성이후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남 중·고등학교 내 원형극장에서 개최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동남장학회 전방진 이사장과 이종현·황영환 부이사장, 송순열 사무국장, 박훈상·유재봉·한명숙 이사장과 장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전방진(동남고 1회)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포전의 유일한 사학(私學)으로서 우리 동남은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후배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인 동남 중·고등학교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재학생들은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게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동남중학교 ▶ 정수진 ▶ 정대운 ▶ 우지현 ▶ 이연남 ▶ 박아름(이상 3학년) ▶ 차승현(특별장학금, 3학년)

□ 동남고등학교 ▶ 조동범(1년) ▶ 김도연(3년) ▶ 한기훈(3년) ▶ 이진희(3년) ▶ 이태승(3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력 배양

## 갈월중학교 2005년 춘계체육대회 개최

갈월중학교(교장 박종구)는 지난 27일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기르고 스포츠 정신을 통해 사회성을 배양하며 체육의 생활화로 학교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5년 춘계 교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피구, 소프트볼, 단체줄넘기, 낫다리 밟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씨름 등의 종목별 경기와 교직원과 학부모의 경기로 축구와 이어달리기 경기를 실시했다.

이날 체육대회 음식바자회를 통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먹거리 제공은 물론 학부모의 단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전종배 학부모회장은 “체육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폭력 등에 가담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구 갈월중학교 교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배양을 위한 공부를 바



갈월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27일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화려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미래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아빠 어렸을 적에(28)

## 동기개울

제비물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을 건너 주리산 모퉁이를 돌아서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큰 개울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와, 동기개울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울을 향해 뛰어듭니다.

그곳에는 재석이, 서울로 이사 갔던 재권이, 응채와 연재 형제 남유리에서 놀러온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견지늬시를 하는 사람, 어항을 놓는 사람, 반두를 풀 썰에 대고 발로 물 숲을 뒤지고 있는 사람, 모래밭에서 흥장난하는 아이들, 벌써 고기를 잡아 배알을 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견지늬시는 물살이 센 빨리 흐르는 물에서 낚시 바늘에 파리처럼 생긴 가짜 미끼가 달린 낚시 바늘의 낚시 줄을 물위에 떠내려 보내 흥들면서 잡는 낚시입니다.

유리 어항은 보통 물살이 흐르는 곳에서는 돌로 담을 쌓아 물살의 흐름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어항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살이 없는 고요한 물에서는 주로 버드나무가지가 들어진 곳이나 풀쑥 언저리, 그리고 웅덩이가 움푹 패인 곳에 놓는데 미끼로 된장을 넣으면 버들치나 썩지, 떡붕어가 잘 뜬답니다. 건빵을 씹어서 넣거나 꺾꽂을 넣으면 불거지며 마자, 피라미가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벼락바위는 옛날 어느 조상께서 조정의 공직에서 물러나 근심을 물리치던 곳이라는 뜻의 퇴우대(退 물러남, 憂 근심, 臺 대)라는 이름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벼락이 떨어졌던 바위라고 하여 벼락바위라고 불렀습니다. 물가에 우뚝 선 바위로 높이가 5m쯤 되는 큰 바위입니다.

바위 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하는 아이도 있고, 바위의 중간쯤에 올라 뛰어내리거나 배치기를 하며 다이빙을 하는 아이도 보입니다.

바위의 밑 수심은 사람의 키로 서너 길은 족히 되나 봅니다. 바위의 밑에는 다리에 털이 난 참게도 살고 있었고, 쏘가리, 메기, 뱀장어가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천혜의 요새로 가끔 물안경을 쓴 사람들이 작살을 들고 들어가 잉어며 가물치, 손바닥 크기의 붕어를 찍어 올리기도 하였지요. 개울의 양쪽 끝의 넓이는 20m는 족히 되어 보입니다.

서울에서 온 재권이는 큰 고무보트를 가지고 놀니다.

“저런 보트 하나 있으면 개울에서 잡자고 살겠네.” 나는 부러워하며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보트는 예닐곱 명의 아이들이 매달려도 갈아 앉지 않을 만

치 큰 것이었기에 재권이는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재권이는 나와 같은 학년으로 작년에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서울에서는 시골서 전학을 오게 되면 한 학년을 뚫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서울과 시골에 실력 차가 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늘 집 앞의 조그만 개울을 막고 개구리해엄을 쳐 보았을 뿐, 벼락바위처럼 넓은 곳에서 수영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물이 두서너개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건너는 그 곳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쉽다며 건널 것을 즐겼습니다.

해엄을 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구리처럼 뒷다리를 모았다 펴는 개구리해엄, 목만 위로하고 누어서 하는 목해엄, 개처럼 네 발을 마구 휘젓는 개해엄, 그리고 계집애들처럼 두발로 물장구를 치며 손을 앞으로 휘젓고 나가는 계집애해엄, 옆으로 한 팔을 죽죽 뻗으며 다른 한 손과 양발을 분주히 움직여 나아가는 열 해엄, 그리고 양손을 번갈아 저으며 나아가는 물갈퀴해엄...

용기를 내어 비료포대를 어깨 위로부터 내리쳐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물 속을 넣은 다음 발바닥을 치며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동바동 안간힘을 쓰며 중간쯤을 건널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물 속에서 잡수해 오면서 나의 생명줄인 비료포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 한쪽을 잡아 당겨 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나는 거의 실신하였습니다.

“인공 호흡해! 가슴을 눌러야 돼!” 아이들은 내가 죽는다면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소리는 내 귀에 또렷이 들렸으니 죽을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물을 많이 먹어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으므로 울고 싶어도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나 나를 거꾸로 엮어 등을 두드리자 내 입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시간쯤 누워 있으려나 정신이 돌아왔으나 더 이상 수영을 배울 기본도 물고기를 잡을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끄러미 아이들이 해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나 눈이 휘둥그레지며 처음 보는 시야에 내 몸의 일부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지요. (계속)

###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 바자회 성황

#### 학생들의 특별활동 위한 기금조성 기회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회장 이은미)는 지난 27일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여 마련한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오후 8시부터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등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노래자랑을 실시해 화합과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노래자랑 1등에서 5등까지 상품은 이봉규 가산점장과 심재호 가산농협협동조합장, 백승용 운영위원장, 정종근 운영위원들이 기증했다.

바자회에는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마련했으며 먹거리와 화분, 침대, 이불, 커피와 아이들 품목, 의류등도 판매했다.

이은미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단합의 장 마련은 물론 수익금으로 학급문집 발간비용 지원과 어린이날 전교생 선물지원, 현장학습 등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화면면 청소년의달기행사

포천시 화면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남)가 주최하고 화면면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송창선)가 주관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최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관내 초등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그간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

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더욱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천고등학교 1학년 손유리 학생을 비롯해 30명의 모범 청소년들이 장학금과 표창장을 받았으며, 행사 후에는 반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명화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만화영화를 관람하는 등,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청소년 건전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포천경찰서 · 포천교육청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복)와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이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선도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포천경찰서장실에서 지난 19일 양기관의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영복 포천경찰서장과 변진수 포천교육청 교육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양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정보교류 및 업무 조정을 위한 협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피해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프로광택사 ‘청소박사’

## 광택, 코팅, 실내크리닝, 흡집제거, 수입차 환영

### 카페트, 침대, 쇼파, 출장크리닝 전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16  
 무료전화 : 080-557-4445  
 TEL : 031)531-4448 HP : 017-208-4445 대표 한기창